남원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 성료

전년 대비 약 3배 강화된 물놀이 시설 구축으로 이용객 큰 호응 얻어

남원 요천 수경공원에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개최한 남원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이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며 인기리에 성료됐다.

남원 요천 수경공원에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개최한 남원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이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며 인기리에 성료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남원 요천 비치 페스티벌과 다르게 이번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은 물놀이 시설물을 대폭 강화하여 워터파크형 축제로 개최하면서 이용객에게 만족감을 상승시켰다.

특히, 유아도 이용할 수 있는 수심 25㎝의 유아 전용풀과 어린이부터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50㎝부터 1m 수심의 수영장까지 구축, 남녀노소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어 전년 대비 약 3배 강화된 물놀이 시설 구축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시설 이용료를 전액 무료로 제공, 랜덤 댄스대결, 립보게임, 매직버블마술쇼, 수상레크레이션의 프로그램 운영과 울랄라세션, 노라조의 특별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특히 축제 공간 및 먹거리 확대로 호응을 받았다.

남원시는 이번 워터밤을 위해 승월교 아래까지 축제 공간을 확대하고 맥주축제장 조성과 푸드트럭 9대를 배치, 저렴한(맥주 1잔당 2천원, 먹거리 메뉴 1만원 이하) 가격으로 먹거리를 제공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한 시민은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먹거리나 공연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며, "내년에도 방문할 계획"이라며 만족도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테마와 계절 축제 개최로 어린이와 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족형, 문화체험 축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순창군 통일대장정’ 성황리 개최

광복 제79주년 기념 · 한반도 평화통일 · 세계평화 염원

순창군이 지난 17일 순창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4 순창군 통일대장정’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통일대장정 행사는 광복 제79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는 평화통일지도자 순창군협의회 회원과 다문화가정 100여 명과 군민이 함께 모여 뜻을 함께했다.

또한, 이상재, 정병수 피스로드 전북 공동실행위원장, 설동찬 (사)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순창군 지회장, 강병문 순창군 노인대학 학장, 김용식 대한노인회 순창군 지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평화통일지도자 순창군협의회와 (사)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순창군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남북예술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경과보고, 내빈소개 및 환영사, 대회사, 축사, 초청강연, 평화메시지 낭독, 통일의 노래 및 만세삼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황인태 선문대학교 교수의 ‘통일의 비전과 국론통일’을 주제로 한 초청강연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황 교수는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비전, 그리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우리 민족의 소망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라며 "순창군에서 시작된 화합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 한반도 전체에 평화를 이룩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도민체전 맞아 숙박·음식점 위생점검 강화

순창군이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철저한 위생관리에 나선다. 군은 이달 21일부터 9월 5일까지 관내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6일 개막하는 도민체육대회를 맞아 순창을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청결하고 친절한 지역 이미지를 심어주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5개 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과 카페 420개소, 숙박시설 23개소 등 총 443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과 화장실, 침구 등의 청결 상태, 소화기 비치 및 환기 상태 등을 살피고, 음식점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여부, 음식물 재사용 유무,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활력 넘치는 임실시장 만든다

먹거리 상권 활성화 위해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입주자 모집

임실군이 임실시장 내 먹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임실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점포에 대하여 입주자를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점포 6개소로,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은 임실군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갖추어 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공고일(2024.8.8.)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실군으로 1년 이상 되어 있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 조건으로는 내부 시설 본인 부담 설치, 공공요금 납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금의 70% 지원)는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한, 사용 허가를 받은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사용 허가가 취소된다.

임실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는 국비 등 50억원을 투입하여 임실시장 내 먹거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층 음식 상가, 옥상 주차장 15면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음식특화상가를 조성을 통해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입점자를 모집한다"며 "임실군만의 특화된 먹거리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3-640-240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추석 맞이 식품안전관리 강화 지도·점검

남원시에서는 추석 명절을 대비,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재료 소비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사용 원료,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적절성 △업종을 위반하여 타 업종의 영업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준부 여부이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 합동점검과 병행하여 관내 살모넬라 발생 우려 음식점(달걀 사용)을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달걀의 보관기준 확인 및 취급 방법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 또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손씻기, 구분 사용하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홍보 및 음식물 재사용 금지를 지도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명절 다소비 식품,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영업장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1명, 공무원 임용 합격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1명이 2024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3년도에도 사업단 참여자 1명이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바 있어 사업단 운영이 빛을 보고 있다.

사업단은 사회 경험이나 직업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청년층의 욕구나 특성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취업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참여자 A씨는 "시와 지역자활센터의 맞춤 지원을 통해 임용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임충근 센터장은 "많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겠다"며, "이번 합격 소식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좋은 동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노후 건물번호판 일제 정비 추진

순창군이 도로명주소 체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0월까지 5개면 1,910여 개소의 노후 건물번호판을 최신형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4년 이전 설치된 건물번호판 중 장기간 풍우에 노출되어 색이 바래거나 훼손된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동계, 풍산, 금과, 팔덕, 적성면 일대 건물번호판 6,000여 개소를 전수조사해 교체가 시급한 1,910개소를 선별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순창군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주소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은 순창읍 등 3개 읍면에 대하여 일제 조사 후 노후 정도가 심한 건물번호판 1,215개소를 교체 완료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도민체전 훈련 장소 제공

임실군이 임실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임실군 대표 수영 선수들에게 훈련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임실군 수영선수단은 전년도 대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며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을 목표로 임실군 수영연맹 김동열 회장을 대표로 하는 14명의 수영선수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대회 전까지 하루 두 번씩 집중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임실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2013년에 개장하여 25m 5레인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민체전 훈련기간 동안 시설 사용을 협조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이번 훈련 장소 제공이 임실군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